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¹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 ²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安鎮燾^{1, 2} · 白裕相² · 張祐彰² · 丁彰炫² *

A Study on 「Benshen」 chapter in *LingShu*

Ahn Jin-hee¹ · Baik You-sang² · Jang Woo-chang² · Jeong Chang-hyun² *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to cure and prevent mental disease by translating and considering *Benshen* chapter in *LingShu*.

Methods : First, I translate the contents of 「*Benshen*」 chapter in *LingShu* paragraph by paragraph. Second, I consider the contents of *Benshen* chapter in *LingShu*.

Third, after considering each paragraph of *Benshen* chapter in *LingShu*, I think the relation of each paragraph and picture to myself *Benshen* chapter.

Results and Conclusions : 1. Heart(心) appeared in *Benshen* chapter mediates the action of 'JeongSinHonBaek(精神魂魄)' and 'UiJiSaRyeoJi(意志思慮智)'.

2. 'UiJiSaRyeoJi(意志思慮智)' appeared in *Benshen* chapter means the process of the maturity of thought. 'Jeong(精)' which has a 'water(水), sink(沈), silent(靜)' image ge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from 'Ui(意)' to 'Ji(志)', because its process means the thought is deepening. 'Hon(魂)' which has a 'wind(風), cloud(雲), change(變)' image ge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from 'Ji(志)' to 'Sa(思)', because its process means the change of the thought. 'Sin(神)' which has a 'fire(火), bright(明), move(動)' image ge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from 'Sa(思)' to 'Ryeo(慮)', because its process means the expansion the horizon of the cognition. 'Baek(魄)' which has a 'metal(金), firm(剛), decide(決)' image ge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from 'Ryeo(慮)' to 'Ji(智)', because its process means the wise response to real world.

3. If one is immersed in one emotion and cannot escape from it, the functional change of Gi(氣) due to its emotion harms five spirits which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causes mental·physical symptoms and has a possibility to die in the season which inhibit each five organs.

4. Five spirits(五神) acts based on 'HyeolMaekYeongGiJeong(血脈營氣精)' and in the symptoms caused by deficiency and excess of five organ Gi(五藏氣), symptoms of liver and heart appear in emotion and symptoms of spleen·lung·kidney appear in body.

5. *Benshen* chapt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hecking ‘Sin(神)’ and ‘Gi(氣)’ treating a patient with acupuncture and mentioning the importance of observing deficiency and excess of five organ Gi(五藏氣) in the last paragraph means ‘Sin(神)’ and ‘Gi(氣)’ are inseparably related.

Key Words : *Benshen* chapter(本神篇), *LingShu*(靈樞), *HonSinUiBaekJi*(魂神意魄志), *UiJiSaRyeoJi*(意志思慮智), Five Spirits(五神).

I. 序 論

『靈樞·本神』은 『素問』과 『靈樞』를 통틀어 ‘神’과 관련한 가장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는 篇이다. 이 篇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神’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心에 감추어진 神 외에도 魂魄, 志意 등이 설명되어 있고 감정의 동요가 五神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설명되어 있어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感情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및 神志와 관련된 질병을 未然에 방지하고 또 治療하는 데에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靈樞·本神』篇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존 연구가 존재하였다. 김성훈의 “本神篇의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에 對한 概念考察”¹⁾ 논문은 『靈樞·本神』篇 三章 중 一章에 나오는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 각각의 개념을 역대 주석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인철과 이상룡의 논문²⁾은 『靈樞·本神』篇 三章 중 二章에 나오는 情志의 변화와 이에 따른 神志傷에 주목하여 역대 醫家

의 注를 서로 비교하여 병리기전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注를 묶어서 분석하였으며, 최성욱과 강정수는 “五神에 관한 연구”³⁾에서 『素問·宣明五氣篇』, 『靈樞·本神篇』, 『難經·三十四難』에 나타난 ‘五神’ 原文 및 各家의 註를 중심으로 ‘五神’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한의학의 五神을 儒家的性情 개념과 비교한 것이 특기할 만하였으며, 백상룡의 논문⁴⁾은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神志세계의 작동기전에 대하여 밝혔으나, 上記 논문들 모두 『靈樞·本神』篇의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에 그쳤다. 중국 논문으로는 蔡⁵⁾·趙⁶⁾·王⁷⁾의 논문이 있었다. 『靈樞·本神』篇 전체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서⁸⁾의 논문이 있었으나, 번역과 주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고찰이 빈약하였다. 『靈樞·本神』篇과 관련한 선행연구 외에 神에 대한 연구는 김지혁과 황의완의 “內經에 나타난 神의 고찰”⁹⁾, 김광중의 “內經에 나타난 神의 의미”¹⁰⁾, 정창현의 “神에 대한 연구-『黃帝內經』을 중

* Corresponding Author : Chang-hyun Jeo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 Daero, Dongdaemoon-gu, Seoul, ROK.

Tel: +82-2-961-0337, E-mail: jeongch@khu.ac.kr
丁彰炫. 首爾特別市 東大門區 慶熙大路 26. 慶熙大學校 韓醫學大學 原典學教室.

Received(24 January 2015), Revised(14 February 2015), Accepted(15 February 2015).

- 1) 김성훈. 本神篇의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에 對한 概念考察. 又石大學校論文集. 1993. 15. pp.349-372.
- 2) 정인철·이상룡. 『靈樞·本神篇』에 나타난 情志變化와 神志傷에 對한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10(2). pp.135-156.

- 3) 최성욱·강정수. 五神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 15(3). pp.367-372.
- 4) 백상룡.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한 考察-한의학의 精神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2). pp.304-316.
- 5) 蔡明德. 分析『靈樞·本神』對思維過程的認識. 雲南中醫中藥雜誌. 1997. 18(6). pp.28-29.
- 6) 趙林燦. 『靈樞·本神』中“意”與“憶”的心理學解讀.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3. 11(4). pp.3-4.
- 7) 王米渠. 『靈樞·本神篇』關於認知的心理思想.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8. 1. pp.18-20.
- 8) 서대선. 『靈樞·本神篇』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1-42.
- 9) 김지혁, 황의완. 內經에 나타난 神의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6. 7(1). pp.104-108.
- 10) 정창현. 神에 대한 연구-『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

심으로-”¹¹⁾ 등이 있었는데, 이는 『黃帝內經』 전체에 나타난 神을 다루고 있어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였으나, 神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하였음을 밝혀 둔다. 논자는 『靈樞·本神』篇과 관련한 기존 연구가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부분적인 논의와 전체를 조망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고, 특히一章에 나타난 ‘意志思慮智’를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 전화과정에 ‘精魂神魄’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靈樞·本神』篇을 단락별로 나눠 번역을 한 뒤에¹²⁾ 각 단락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망하여 『靈樞·本神』篇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本 論

1. 刺鍼의 法은 반드시 먼저 神에 근본해야 한다.

『靈樞·本神』편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章으로 나뉜다.¹³⁾ 一章에서는 神의 생성과 分化 및 五神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二章에서는 五神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感情의 適用에 따른 정신 증상 및 신체 증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三章에서는 五藏氣의 虛實을 나타내

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刺鍼해야 함을 나타내었다. 우선 本神篇의 序頭를 살펴본다.

黃帝問於岐伯曰凡刺之法，必先本於神，血脈營氣精神，此五藏之所藏也，至其淫泆離藏則精失，魂魄飛揚，志意怵亂，智慮去身者，何因而然乎，天之罪與，人之過乎。何謂德氣生精神魂魄心意志思智慮，請問其故。¹⁴⁾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어 말하기를 무릇 刺鍼의 法은 반드시 神에 근본을 두어야 하니, 血·脈·營·氣·精·神은 五藏이 간직하고 있는 바로, 어지럽게 흘러넘쳐 藏을 떠남에 이르면 精이 소실되고, 魂魄이 날아오르며, 志意가 어슴푸레하여 어지러워지고, 智慮가 몸을 떠나가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罪입니까? 사람의 과실입니까? 어떤 것을 德·氣·生·精·神·魂·魄·心·意·志·思·智·慮라고 합니까? 그 緣故를 請하여 묻습니다.”

本神篇의 序頭 단락에서는 刺鍼을 할 때, 의사가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神¹⁵⁾’이며 肝·心·脾·肺·腎 五藏 각각에 간직되어 있는 血·脈·營·氣·精과 血·脈·營·氣·精에 깃들여 활발한 정신 활동을 펼치고 있는 ‘魂神意魄志’ 五神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지럽게 흘러넘쳐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岐伯答曰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并精而出入者謂之魄。所以任物者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¹⁶⁾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1-100.

- 11) 김광중. 內經에 나타난 神의 의미-神의 本源的 개념을 바탕으로-. 동의생리학회지. 1994. 9(1). pp.1-12.
- 12) 단락별로 나눠 번역을 할 때 순차적인 번역을 고집하지 않고, 내용에 유사성이 있는 것 즉 “怵惕思慮者則傷神，神傷則恐懼，流淫而不止”，“心怵惕思慮，則傷神，神傷則恐懼自失，破胭脫肉，毛悴色夭，死於冬”과 같은 것은 소주제 내에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번역하였다.
- 13) 『靈樞·本神』篇을 세 개의 章으로 분류한 것은 기본적으로 任應秋가 主編한 『黃帝內經章句索引』(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을 따랐으나, 각각의 章에 제목을 부여한 것은 논자가 각 章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한 제목임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二章 내에서 “怵惕思慮者則傷神，神傷則恐懼，流淫而不止”，“心怵惕思慮，則傷神，神傷則恐懼自失，破胭脫肉，毛悴色夭，死於冬”과 같이 내용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소주제 내에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번역하기 위해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1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15) 『靈樞·本神』 외에도 『素問·寶命全形論』에 ‘凡刺之眞必先治神’이라고 했고, 『靈樞·官能』에서 ‘用鍼之要無忘其神’이라고 하여 刺鍼에 있어서 ‘神’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내게 존재를 나타내는 요소는 ‘德’이고, 땅이 내게 존재를 나타내는 요소는 ‘氣’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德이 (하늘로부터) 흘러오고 氣가 (땅으로부터) 이르러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오는 것을 ‘精’이라고 하며, 두 精이 서로 맞붙은 것을 ‘神’이라고 하고, ‘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魂’이라고 하며, ‘精’과 아울러 출입하는 것을 ‘魄’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心’이라고 하며,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意’라고 하고, ‘意’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志’라고 하며, ‘志’로 인하여 변화를 돕을 ‘思’라고 하고, ‘思’로 인하여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慮’라고 하며, ‘慮’로 인하여 사물에 대처함을 ‘智’라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五神의 두 가지 서로 다른 層次를 이야기하고 있다. 岐伯答曰부터 并精而出入者謂之魄까지는 생명의 탄생과 생명이 탄생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神’의 分化에 대해 이야기하여 五神의 ‘體’를 주로 다루었다. 所以任物者謂之心부터 因慮而處物謂之智까지는 五神의 ‘用’을 주로 다루었다. 즉 ‘神’이 실제 現實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神’의 用인 ‘智’로써 사물에 대처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德·氣·生’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을 품부 받아서 태어나는데,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맑고 형체가 없으며 無慾하고 私心이 없는 ‘德’을 부여받고, 땅으로부터는 활발한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氣’를 부여받아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¹⁷⁾과 마찬가지로 三才의 원리를 나타내었다고도 할 수 있다.

‘德·氣·生’에 이어지는 내용은 ‘神’의 分化에 관한 내용으로 ‘精神魂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의 ‘陽神’과 어머니의 ‘陰神’이 相搏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원초적 뿌리

이자 생명력인 ‘精’이 자리 잡게 되는데, 『靈樞·決氣』에서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¹⁸⁾이라고 한 것과 같다. 精이 생성된 뒤에는 개체 내의 陰陽運動을 통해 陰精과 陽精으로 분화한 뒤 다시 이 兩精이 相搏하여 정신적 창조력을 발휘하는 ‘神’이 출현한다. 이 때 五神 중에서 木의 生氣를 지닌 ‘魂’이 ‘神’을 따라 往來하면서 ‘精’에서 ‘神’으로의 정신적 高揚을 돕게 된다. 살아 있는 생명체로 외부의 氣에 의존하는 ‘氣立之物’이 아니라, 내부의 무궁한 생명력을 창출해내는 ‘神機之物’인 사람은 정신적 창조 활동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므로 ‘神’을 발현한 뒤에는 發散된 기운을 모아 다시 ‘精’이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흩어지고 탁해진 ‘精’을 모으고 맑게 하기 위해서는 五神 중에서 金의 收氣를 지닌 ‘魄’이 필요한데, ‘魄’은 ‘精’과 아울러 出入하면서 ‘神’의 陰의 滋養역할을 하는 ‘精’의 생성을 도와 간접적으로 ‘神’의 활동에 관여한다. 이렇게 精이 축적되어야 축적된 精을 바탕으로 神의 창조활동이 이루어져 神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素問·上古天真論』에서 말한 ‘積精全神’이다.

‘精神魂魄’과 ‘意志思慮智’의 중간에 나오는 ‘所以任物者謂之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부리는 것이 ‘心’임을 명시하고 있다. ‘心’은 ‘君主之官’으로써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精神魂魄’의 작용과 밖으로 펼쳐져 쓰이는 ‘意志思慮智’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神’이 실제 現實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神’의 用인 ‘智’로써 사물에 대처하게 되는 과정인데, ‘神’의 用인 ‘智’도 ‘神’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生命의 성장이 ‘生長化收藏’의 五行 순환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듯이 생각의 싹이 점점 자라고 변화하여 ‘智’라는 생각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本神篇에서는 ‘意志思慮智’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1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1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8.

이를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단계를 세밀하게 살펴 보면, ‘意’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기억되는 과정으로, 아직 깊이 자리 잡거나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자신의 認識이 그곳을 향하며 그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智’의 싹이라고 할 수 있다. ‘意’에서 ‘志’로의 展開는 未定했던 생각이 점점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 뚜렷해지며 깊어지고 굳건해져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각의 싹이 자리 잡지 못하고 ‘意’라는 未定된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굳건하지 못하여 비바람에 금방 그 싹이 꺾여 버릴 수 있지만, 생각의 싹을 흘려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한다면 생각의 싹이 점점 뿌리내리게 되어 더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水의 潛藏하는 속성이 ‘意’에 가미되어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로 ‘志’에서 ‘思’로의 展開는 생각의 싹에 새로운 돌과구, 轉機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싹이 땅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으면 기초가 튼튼해진 만큼 그 기초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의 잎과 꽃으로 發出시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꾀해야 한다. 만약 깊게 뿌리 내린 생각이 잠들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죽은 생명체와 다름이 없는데, 沈潛과 玩索의 思惟활동을 통해 깊게 뿌리 내린 생각의 싹에 싱싱한 녹색의 잎이 돌아나듯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아 一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며,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思’에서 ‘慮’로의 展開는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다시 살펴보니 지금까지 너무나 좁은 생각의 굴레에 묶여 틀에 박힌 제한된 생각만 했음을 인지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먼 범위까지 思惟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認識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意’에서 ‘志’로의 展開가 생각이 縱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했다면, ‘思’에서 ‘慮’로의 展開는 생각이 橫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로 ‘慮’에서 ‘智’로의 展開는 깊어지

고 넓어진 생각이 理的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氣的인 현실세계에 발휘됨을 의미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過不及하지 않은 中庸의 道로써 잘 응대하고 처리하는 성숙된 지혜를 의미한다. 이것은 ‘意志思慮智’라는 생각의 한 사이클¹⁹⁾을 거쳤기에 가능한 것이다. ‘神’의 작용이 ‘智’라는 생각의 열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意志思慮智’의 과정은 결국 지혜로운 자를 말하기 위함인데, 어떤 생각 하나가 적절한 상황에 맞춘 지혜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많은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깊게, 넓게,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통하여 현실 생활의 다양한 정황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야 한다.

지금까지 둘로 나누어져 이루어진 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Fig 1.)과 같다.

이것은 첫 번째에서 논한 神의 分化인 ‘精神魂魄’과 智로 발현될 때의 생각의 과정을 서로 연관시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으로, ‘意’에서 ‘志’로의 전개는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이므로 五神 중 水, 沈, 靜의 象을 지닌 ‘精’이 관여할 것이고, ‘志’에서 ‘思’로의 전개는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므로 風, 雲, 變의 象을 지닌 ‘魂’이 관여할 것이며, ‘思’에서 ‘慮’로의 전개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고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므로 火, 明, 動의 象을 지닌 ‘神’이 관여할 것이고, ‘慮’에서 ‘智’로의 전개는 현실 세계에 알맞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므로 金, 剛, 決의 象을 지닌 ‘魄’이 관여할 것이다.

故智者之養生也, 必順四時而適寒暑²⁰⁾,

19) 이것이 바로 『素問·玉版論要』에 나오는 ‘神轉不回’로, 폐쇄회로의 형상을 한 ‘回’의 획일화되고 똑같은 제자리 걸음식 생각이 아니라, ‘意志思慮智’의 과정을 거쳐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사고의 성숙이 삶의 지혜로까지 발휘되어 현실세계에 쓰여짐을 의미한다.

20) 『素問·四氣調神大論』에 四時에 순응하여 추위와 더위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자제히 나와 있다. 봄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뜰을 넓게 거닐고, 머리카락을 묶어두지 말고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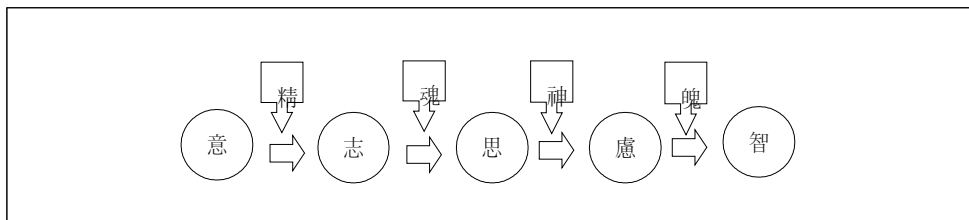


Fig1. The correlation between JeongHonSinBaek(精魂神魄) and UiJiSaRyeoJi(意志思慮智)

和喜怒而安居處，節陰陽而調剛柔，如是則僻邪不至，長生久視。²¹⁾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養生은 반드시 四時에 순응하여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 적절히 나아가고, 喜怒를 조화롭게 하며 거처를 편안히 하고, 陰陽을 절도 있게 하며 굳셈과 부드러움을 조절하니, 이와 같이 하면 편벽된 邪氣가 이르지 않고 오래 살며 오래 봅니다.”

여기서는 智者의 養生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형이상학적인 ‘神’의 관리를 위해 天地自然의 사계절 變化에 따라 나타나는 氣의 偏差와 온도의 차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활하고, 자신의 감정의 오르고 내림을 평상시에 잘 살피서 감정을 발휘하되 적절한 상황에서 中庸의 도에 맞게 발휘하며, 喜怒哀樂의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정에서 저절로 居處함이 편안해지고, 陰할 때는 陰하고 陽할 때는 陽하여 陰陽을 적절히 절도 있게 부려서 자신을 조절하며, 굳셈이 필요한 곳에서는 굳세게 행동하고 부드러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부드러움으로 대처하여, 굳셈과 부드러움을 현악기

헤치며 형체를 느슨히 하는 등 養生의 道를 지켜나가며, 여름에는 번성하는 계절이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맘을 흘리며 활기찬 생활을 하는 등 養生의 道를 지켜나가며, 가을에는 收斂하는 계절이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神氣를 수렴하고 그 뜻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등 養生의 道를 지켜나가며, 겨울에는 閉藏하는 계절이니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며 陽氣를 동요시키지 말고 뜻을 숨긴 듯하여 養生의 道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2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의 줄을 조율하듯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등 형이하학적인 ‘氣’의 조절에 항상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感情의 동요와 五神의 상관관계

1) 怵惕思慮와 神

是故怵惕思慮者則傷神，神傷則恐懼，流淫而不止。²²⁾

“이러한 까닭에 怵惕하고 思慮하면 神을 傷하니, 神을 傷하면 두려워하고 精이 흘러넘쳐 그치지 않습니다.”

怵惕은 두려움과 놀람을 뜻하는 용어로 恐懼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怵’은 자신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마음에서 ‘尫’이라는 식물이 자라나듯 두려움의 감정이 용솨음침을 의미하고, ‘惕’은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서 두려움의 감정으로 바뀐(易)을 의미한다. 思慮는 1회에 그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이 품은 뜻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思), 그를 바탕으로 생각지 못했던 범위까지 아우르며 사려하는 것(慮)으로 고도의 사고와 판단이 개입되므로 가장 높은 層次에 있는 ‘神’의 소모를 가져온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여 두렵고 놀라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게 되어 神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단순한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자신의 精力을 한 곳에 쏟아 부어 깊고 먼 곳까지 생각을

2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까지 탐색함으로 인해 자신의 불꽃같은 생명력이 그 생각에 바쳐지며 굉장한 에너지의 소모 및 ‘神’의 손상이 초래된다. 『素問·舉痛論』에는 비록 怵惕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驚’이 나오는데, 그 氣機를 “驚則氣亂...중략...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²³⁾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氣亂이 傷神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思慮는 정신의 수고로움을 요구하므로 『素問·舉痛論』의 九氣 중 ‘勞’와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녔는데²⁴⁾, 이에 대해 “勞則氣耗...중략...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²⁵⁾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氣耗가 傷神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心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破膈脫肉, 毛悴色夭²⁶⁾, 死於冬.²⁷⁾

“心이 怵惕하고 思慮하면 神을 傷하며, 神을 傷하면 두려움에 떨고 자기 자신을 잃어 제어할 수 없으며, 군살이 깨뜨러지고 肌肉이 빠져나가며,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夭해져 겨울에 죽습니다.”

2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24) 『素問·舉痛論』에 ‘思則氣結’의 내용이 나오지만, 『靈樞·本神』에 나타난 감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怵惕思慮의 思慮는 정신의 수고로움을 더 요구하고 보아 ‘勞則氣耗’와 연관지어 생각하였고, 4) 愁憂와 意에 나오는 愁憂는 氣閉塞而不行하므로 ‘思則氣結’과 연관시켜 생각하였음을 밝힌다.

2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26) 夭의 형상을 보면 ‘大’字에 빠침(ノ)이 더해져, 뿔가 쭉쭉 자라나던 것이 막혀 꺾이고 급혀짐을 나타낸다. 『內經』에서 ‘夭’는 대체로 두 가지 쓰임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일찍 죽는다’의 의미로 ‘壽’와 반대되는 뜻이고, 두 번째는 ‘色이 어둡고 초췌하다’의 의미로 ‘澤’과 반대되는 뜻이다. 여기서는 後者의 쓰임인데, 夭色은 五藏의 精氣가 그대로 노출되는 色으로 순간 반짝하는 妖艷한 色이 예뻐 보일 수도 있으나 脈에서 眞藏脈이 드러나면 죽는 것처럼 死證의 징후를 나타내는 色이다.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 ‘藍, 赭, 黃土, 鹽, 地蒼’이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夭色의 예이다.

2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앞의 본문과 이 곳의 본문에서 ‘怵惕思慮’에 대해 똑같이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怵惕思慮’는 앞의 상황보다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²⁸⁾, 근육이 모이는 곳인 ‘膈’이 깨뜨려져 肌肉이 빠져나가 야위고, 털이 초췌해지며 色이 不澤해지면서 寒冷之氣에 의해 더욱 더 손상받기 쉬운 ‘神’이 겨울이 되어 克함을 받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된다.

2) 悲哀와 魂

因悲哀動中者, 竭絕而失生.²⁹⁾

“슬픔으로 인하여 중심이 흔들리는 자는 고갈되어 끊어져 생명의 기운을 잃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주로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슬픔의 감정이 자신이 지키고 자하는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커지면 氣가 고갈되고 단절되어 생명력의 상실을 야기한다. 『素問·舉痛論』에는 “悲則氣消...중략...悲則心糸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³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氣가 소모되는 것과 竭絕而失生은 서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³¹⁾.
不精則不正, 當人陰縮而攣筋, 兩脇骨不舉,
毛悴色夭, 死於秋.³²⁾

28) 神傷하면 恐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破膈脫肉, 毛悴色夭’등의 重症이 더해지기 때문에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2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31) 精은 본래 세심한 변별 과정을 거친 뒤에 선택된 좋은 쌀을 의미하는데, 이런 원래의 함의에서 발전되어 ‘精’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날카로움, 예리함, 명확함, 靈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不精’은 木氣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예리함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슬퍼서 중심이 흔들리면 肝의 魂이 傷하는데, 魂이 傷하면 狂忘하여 면밀하지 못하게 되고, 면밀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게 되며 陰器가 수축되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며 양쪽의 옆구리 뼈가 들리지 않고,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夭해져 가을에 죽습니다.”

여기에 나온 悲哀動中은 앞에 나온 悲哀動中보다 그 감정이 지속적이며 한층 심화된 것으로 이러한 감정은 五神중 生氣를 불러일으키는 魂을 傷하게 하고, 魂이 상하면 狂忘하며 정신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이 많이 떨어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狂’은 魄이 傷했을 때 나타나는 ‘狂’과는 분명 다른 형태의 ‘狂’일 것으로 사료된다. 魂이 傷하면 전반적으로 봄의 生氣가 꺾이는 상황이므로 魂傷의 ‘狂’은 陰의인 ‘狂’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魄이 傷했을 때 나타나는 陽的인 ‘狂’과는 다른 형태의 병증으로 나타날 것이다. 魂이 傷하면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봄의 生氣가 傷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된 형상의 陰縮, 攣筋, 兩脇骨不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윤택을 잃으면서 가을의 收斂하는 기운을 만나면 克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

3) 喜樂과 魄

喜樂者, 神憚散而不藏.³³⁾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神이 흩어져 간직되지 못합니다.”

‘喜’와 ‘樂’을 구분해 본다면, 기쁨(喜)이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내부에서 샘솟는 감정이라면, 즐거움(樂)은 바깥의 대상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삶의 욕구들이 만족되면서 얻어지는 쾌락과 같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뻑뻑하고 긴장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은 긴장을 풀어주어 삶을 여유롭고 조화롭게 살

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표출하는 웃음을 통해 너무 많은 氣가 방출되므로 氣가 이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素問·舉痛論』에서 “喜則氣緩...중략...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³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氣緩이 神憚散而不藏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³⁵⁾

“기쁘고 즐거운 것이 끝이 없으면 肺의 魄을 傷하는데, 魄을 傷하면 狂하게 되고, 狂한 자는 뜻을 남에게 두지 아니하며, 피부와 가죽이 타들어가고,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夭해져 여름에 죽습니다.”

앞에 나온 ‘喜樂’이 일시적인 ‘神’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여기에 나오는 ‘喜樂’은 좀 더 장기간에 걸쳐 ‘喜樂’이라는 감정을 適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喜樂’의 감정에 耽溺하게 되면 중착역이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열차처럼 자신의 정신을 알아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魄’은 精과 아울러 出入하는 것으로 가을의 收斂하는 성질을 가진 五神중 하나인데, 喜樂의 감정이 중용의 도를 잃고 끝이 없는 곳을 향하여 치닫게 되면, 수렴하는 魄이 발산하는 喜樂의 감정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어 傷하게 된다. 魄이 傷하면 수렴하는 기능이 發散하는 기능을 이기지 못하여 狂症이 발생하는데, 여기서의 狂症은 陽的인 狂症으로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에 빠져 멈춰야 할 지점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타오르는 불의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肺와 습관계에 있는 皮毛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이라면 촉촉하고 살색이 나타나는 피부를 火氣로 불타게 하여 黃黑色과 같은 焦色으로 만든다. 결국은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윤택을 잃으

3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3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면서 여름의 發散하는 기운을 만나면 克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

4) 愁憂와 意

愁憂者, 氣閉塞而不行.³⁶⁾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氣가 닫히고 막혀서 운행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할 때, 단기적으로는 하루하루 살면서 바로 앞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많은 근심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愁憂’는 『素問·舉痛論』에 나오는 九氣에 대한 설명 중 ‘思則氣結’과 관련성이 제일 높는데, 그 氣機를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³⁷⁾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氣結에서 氣閉塞而不行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脾愁憂而不解則傷意, 意傷則惋亂, 四肢不舉, 毛悴色天, 死於春.³⁸⁾

“시름에 겹고 근심스러운 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脾의 意를 傷하니 意를 傷하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어수선해지며 四肢를 잘 들지 못하고 털이 초췌해지며 色이 夭해져 봄에 죽습니다.”

앞에 나온 ‘愁憂’가 다만 ‘氣’의 일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면 여기 나오는 것은 ‘愁憂’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氣가 점점 막히게 되고 급기야는 탈출구가 없어 정신이 흐릿해지고 어수선해지는 등 惋亂한 상태에까지 도달함을 의미한다. 氣가 막힌 상태이므로 새로운 생각의 싹이 내안에 들어올 틈이 발생하지 않아 意를 傷하게 되고, 胃로 들어온 水穀

之氣가 脾의 중개와 분배작용을 통하여 말단으로 氣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서 四肢가 무겁고 게으른 듯 움직이기가 귀찮으며 들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걱정 근심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윤택을 잃으면서 봄의 發散하는 기운을 만나면 克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

5) 盛怒와 志

盛怒者, 迷惑而不治.³⁹⁾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迷惑하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자신의 좋은 의지가 누군가에 의해 나쁘게 이용당했다고 느꼈을 때, 혹은 不合理하고 不義한 일을 목격했을 때, 분노의 감정이 發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러한 감정이 시의적절한 감정이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자신의 중심을 잃고 분노에 빠져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迷惑하게 되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怒’의 감정과 관련하여 『素問·舉痛論』에서 “怒則氣上...중략...怒則氣逆, 甚則嘔血及痰泄, 故氣上矣.”⁴⁰⁾라고 했는데, 분노의 감정이 發하면 氣의 흐름이 한 순간에 逆轉되어 氣上하게 되며 이는 迷惑되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毛悴色天, 死於季夏.⁴¹⁾

“심하게 화를 내어 그치지 아니하면 志를 傷하고,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3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4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4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 ① 怵惕思慮→傷心神→恐懼流淫而不止→恐懼自失, 破脇脫肉→ 毛悴色夭, 死於冬.
② 悲哀動中→傷肝魂→竭絕而失生→狂忘不精不正, 陰縮攣筋兩脇骨不舉→ 毛悴色夭, 死於秋.
③ 喜樂→傷肺魄→神憚散而不藏→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
④ 愁憂→傷脾意→氣閉塞而不行→惋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於春.
⑤ 盛怒→傷腎志→迷惑而不治→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毛悴色夭, 死於季夏.
⑥ 恐懼→傷腎精→神蕩憚而不收→骨痠痿厥, 精時自下→ (毛悴色夭, 死於季夏)⁴².

Table 1. Harming five spirits and mental-physical symptoms caused by excessive emotion.

志를 傷하면 앞에 했던 말을 잘 잊어버리고, 腰脊을 굽혔다 폈다가 할 수 없으며, 털이 초췌해지고 色이 夭해져 늦어짐에 죽습니다.”

熾盛한 분노의 감정이 그치지 않으면 志를 傷하여 바로 앞에 했던 말을 잘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怒則氣上’의 원리에 의해 분노의 감정이 기운을 위로 솟구치게 만들어 潛藏하려고 하는 ‘志’를 潛藏하지 못하게 하고 傷하게 하여 바로 앞에 했던 말을 내 인식 속에 각인시키기도 전에 한쪽 귀로 들으면 바로 다른 한쪽 귀로 나오듯 말이 내 의식 안에 안착하기도 전에 떠나가 버려 쉽게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품은 바의 깊은 뜻(志)을 傷하게 되면 定해진 확고한 신념이나 지조가 없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순간적인 대응이나 민첩성은 좋을 수 있으나, 鎮重하지 못하여 信義가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두 번째 증상인 허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腰脊은 집의 대들보처럼 인체의 중심을 받쳐주는 기둥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의 뿌리에 해당되는 ‘志’가 傷하면 연못가의 浮萍草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는 象을 지니게 되어 ‘腰脊屈伸不利’의 병증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6) 恐懼와 精

恐懼者, 神蕩憚而不收.⁴³⁾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神이 흔들려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여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 ‘恐’과 관련하여 『素問·舉痛論』에서는 “恐則氣下...중략...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⁴⁴⁾라고 했는데, 두려움의 감정으로 기운이 아래로 철커덕 내려앉은 것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져 神志가 動蕩하게 되고, 腎에 저장되어 있던 精이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어 수렴이 잘 되지 않는 것과 서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恐懼而不解則傷精, 精傷則骨痠痿厥, 精時自下.⁴⁵⁾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精을 傷하게 되고, 精을 傷하면 뼈가 시큰거리며 痿症과 厥症이 나타나

42) 괄호안의 내용은 『靈樞·本神』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靈樞·九鍼論』에 “五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精志也.”라고 精志를 함께 腎에 배속시킨 것에 근거해 볼 때, 괄호안의 내용이 중복되어 쓰이지 않고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4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4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4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고 精이 때때로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 ‘恐則氣下’의 氣機에 의해 精이 아래로 배설되어 손상이 일어나고 精이 傷하면 骨髓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뼈가 시큰거리는 痿이 나타나고 몸의 筋脈이 이완되고 팔다리의 피부와 근육이 위축되면서 약해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痿가 발생하며 陰陽이 순조롭게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厥이 나타난다.

是故五藏主藏精者也，不可傷，傷則失守而陰虛，陰虛則無氣，無氣則死矣。是故用鍼者，察觀病人之態，以知精神魂魄之存亡得失之意，五者以傷，鍼不可以治之也。⁴⁶⁾

“이러한 까닭에 五藏은 주로 精을 간직한 것으로, 傷하면 안되니, 傷하면 지킴을 잃어 陰虛해지고, 陰虛하면 氣가 없어지며, 氣가 없어지면 죽는다. 그러므로 鍼을 사용하는 사람은 病人의 동태를 살피고 관찰하여서 精神魂魄의 있음과 없음, 얻음과 잃음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다섯 가지가 이미 상했을 경우에는 鍼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神’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의 過用은 五藏에 간직되어 있어야 할 五神을 들뜨게 하여 제자리를 잃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醫者로써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五神이 이미 손상된 증후라면 鍼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빨리 판단해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感情에 몰입하여 그 感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感情으로 인해 발생하는 氣機변화는 그와 반대 운동⁴⁷⁾을 하는 五神

을 傷하게 하여 정신 증상 및 신체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그 五神이 克을 당하는 계절에 죽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五藏氣의 虛實

肝藏血，血舍魂，肝氣虛則恐，實則怒。⁴⁸⁾

“肝은 血을 간직하고, 血에는 魂이 깃들어 있는데, 肝氣가 虛하면 恐하고, 實하면 怒합니다.”

‘肝藏血，血舍魂’은 ‘肝藏魂’의 내용을 ‘血’이라는 媒介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魂’이 그 작용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陰의인 滋養에 해당되는 ‘血’이 반드시 필요하며, 『素問·五藏生成』의 “肝受血而能視，足受血而能步，掌受血而能握，指受血而能攝”⁴⁹⁾을 통하여 肝과 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肝氣가 虛하면 生氣의 부족으로 勇氣가 없어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沈潛되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와 반대로 肝氣가 實하면 生氣가 너무 흘러 넘쳐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脾藏營，營舍意，脾氣虛則四肢不用，五藏不安，實則腹脹經⁵⁰⁾澀不利。⁵¹⁾

“脾는 營을 간직하고, 營에는 意가 깃들어 있는데, 脾氣가 虛하면 四肢를 쓸 수 없고 五藏이 불안하며, 實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대소변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수렴케 하므로 서로 상반되고, 盛怒하면 氣가 치솟으므로 潛藏하는 속성을 지닌 ‘志’와 서로 상반된다.

4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47) 예를 들어 ‘悲哀’의 감정은 氣를 소모케 하여 아래쪽으로의 운동성을 갖고 있다면, ‘魂’은 木의 속성을 지니 위쪽으로 뻗치므로 서로 상반되고, ‘喜樂’의 감정은 氣를 느끼게 하여 퍼지게 한다면, ‘魄’은 金의 속성을 지니 氣를

4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4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9.

50) 張介賓은 “調經論曰形有餘則腹脹經澀不利，經當作涇”이라고 하면서 ‘經’을 ‘涇’으로 풀이하였는데, 여기서도 이를 따라 해석했다.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9.

5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脾藏營, 營舍意’는 ‘脾藏意’의 내용을 수곡의 精微로부터 얻어지는 ‘營’이라는 媒介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意’가 그 작용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陰的인 滋養에 해당되는 ‘營’이 반드시 필요하다. 脾氣가 虛하면 四肢百骸와 五藏六府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 팔다리를 마음먹은 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며, 영양을 못 받은 五藏은 불안해져 정서적 不安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脾氣가 實하면 濕氣가 왕성해져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복부에 쌓여 腹脹을 초래하며, 대소변도 시원스럽지 못하다.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⁵²⁾

“心은 脈을 간직하고, 脈에는 神이 깃들어 있는데, 心氣가 虛하면 슬프고, 實하면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心藏脈, 脈舍神’은 ‘心藏神’의 내용을 ‘脈’이라는 ‘血之府’를 媒介로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心’은 몸의 血脈을 주관함으로써 ‘神’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心氣가 虛하면 心에 해당되는 감정인 기쁨과 반대되는 슬픔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心氣가 實하면 神氣가 과도해져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웃어댄다.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鳴胸盈仰息.⁵³⁾

“肺는 氣를 간직하고, 氣에는 魄이 깃들어 있는데, 肺氣가 虛하면 코가 막혀 숨쉬기가 不利하고 氣가 적으며, 實하면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이 그득하고 하늘을 보면서 숨을 쉽니다.”

‘肺藏氣, 氣舍魄’은 ‘肺藏魄’의 내용을 ‘氣’라는 媒

介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魄’이 그 작용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魄’의 원동력인 ‘氣’가 잘 생성되어야 한다. 肺氣가 虛하면 氣의 源泉인 天氣를 들이마시는 九竅중의 하나인 코가 막히게 되어 숨쉬기가 수월하지 않아 말에 힘이 없고 숨이 약하고 짧으면서 촉박한 병증인 少氣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肺氣가 實하면 숨이 차고 호흡하는 소리가 거칠어지며 천식환자처럼 헐떡거리고 가슴이 그득하며 몸을 약간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하고 숨을 쉬게 된다.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藏不安.⁵⁴⁾

“腎은 精을 간직하고, 精에는 志가 깃들어 있는데, 腎氣가 虛하면 厥하고, 實하면 脹하며 五藏이 불안합니다.”

‘腎藏精, 精舍志’는 ‘腎藏志’의 내용을 ‘精’이라는 媒介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志’가 그 작용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陰的인 滋養에 해당되는 ‘精’이 반드시 필요하다. 腎氣가 虛하면 陽氣가 부족하여 厥이 나타나고 반대로 腎氣가 實하면 水氣가 왕성해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는 脹이 발생하고, 五藏이 不安하다.

必審五藏之病形, 以知其氣之虛實, 謹而調之也.⁵⁵⁾

“반드시 五藏의 病形을 살펴서 그 氣의 虛實을 알고 삼가 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五藏氣의 虛實에 따른 병증을 살펴보았는데, 肝·心·脾·肺·腎에 깃들여져 있는 魂·神·意·魄·志는 반드시 血·脈·營·氣·精을 바탕으로 삼아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五藏氣의 虛實을

5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5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5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5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논함에 있어서 왜 肝心은 藏氣의 虛實에 따라 감정으로 증상이 발현되고, 나머지 ‘脾肺腎’ 세 藏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同氣相求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肝·心·脾·肺·腎 五藏 중 좀 더 氣의인 肝心은 그 증상도 氣의 역동성을 살필 수 있는 감정으로 드러나고, 五藏 중 좀 더 形的인 脾肺腎은 그 증상도 形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III. 考 察

『靈樞·本神』篇은 黃帝가 岐伯에게 鍼刺法은 반드시 神을 근본으로 하는데, 魂魄飛揚, 志意恍惚, 智慮去身 등 神이 不安한 경우 이것이 하늘의 罪인지 사람의 과실인지를 묻는 질문과 神의 생성과정에 관여하는 ‘德氣生精’, 五神의 體인 ‘魂神意魄志’, 五神의 用인 ‘意志慮智’ 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사람의 神이 건강하려면 養生을 잘 해야 하고, 養生을 잘하려면 智慧로워야 한다. 지혜는 일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많은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靈樞·本神』篇 一章 두 번째 단락에 이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기억되고(意), 여기에 水, 沈, 靜의 象을 지닌 ‘精’이 매개하여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志), 다시 여기에 風, 雲, 變의 象을 지닌 ‘魂’이 매개하여 생각의 짝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게 되며(思), 다시 여기에 火, 明, 動의 象을 지닌 ‘神’이 매개하여 틀에 박힌 제한된 범위 외에 좀 더 먼 범위까지 사유할 수 있게 되고(慮), 다시 여기에 金, 剛, 決의 象을 지닌 ‘魄’이 매개하여 깊어지고 넓어진 생각이 理的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氣의인 현실세계에 발휘되게 된다(智). 만약 지혜가 부족하여 養生을 잘못하게 되면 외부 세계의 변화에 분노, 기쁨, 슬픔, 걱정, 공포 등 극심한 감정의 동요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五臟에 깃들인 五神을 傷하게 하여 各種 정신 증상과 신체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감정의 동요로 인해 발생하는 氣機의 변화는 그와 반대 운동을 하는 五神을 傷하게 하여 甚하면 그 五神이 克을 당하

는 계절에 죽을 수 있다. 따라서 鍼治療를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신체 증상 및 정신 증상 등 ‘態’를 잘 살펴 五神이 이미 손상된 증후라면 鍼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빨리 판단해내야 한다. 三章에서는 五氣의 虛實에 따른 병증이 나타났는데, ‘肝心’의 虛實 증상은 감정으로 드러나고, ‘脾肺腎’ 세 臟의 虛實 증상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마도 同氣相求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肝·心·脾·肺·腎 五藏 중 좀 더 氣의인 ‘肝心’은 그 증상도 氣의 역동성을 살필 수 있는 감정으로 드러나고, 五藏 중 좀 더 形的인 脾肺腎은 그 증상도 形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靈樞·本神』篇 전반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一章에서 刺鍼時 神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神의 생성과 分化 및 五神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二章에서는 감정의 동요가 五神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언급하였으며, 三章에서는 五藏氣의 虛實을 살펴 자침할 때 잘 조절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刺鍼時 환자의 氣와 神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章의 서두에서 刺鍼할 때는 ‘神’을 근본에 두어야 한다고 했고, 二章의 말미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精神魂魄의 存亡과 得失을 잘 알아야 하며, 五神이 傷했다면 鍼治療를 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고, 三章에서는 ‘神’보다 한 단계 낮은 層次인 ‘氣’의 虛實을 살펴서 조절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神의 상태를 살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쓰임은 氣로 나타나지만, 氣를 부리는 것은 神이기 때문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靈樞·本神』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本神篇에 나타난 ‘心’은 ‘君主之官’으로써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精神魂魄’의 작용과 밖으로 펼쳐져 쓰이는 ‘意志慮智’를 매개하고 있다.

2. 本神篇에 나타난 ‘意志思慮智’는 생각이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意’에서 ‘志’로의 전개는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이므로 五神중 水, 沈, 靜의 象을 지닌 ‘精’이 관여할 것이고, ‘志’에서 ‘思’로의 전개는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므로 風, 雲, 變의 象을 지닌 ‘魂’이 관여할 것이며, ‘思’에서 ‘慮’로의 전개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고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므로 火, 明, 動의 象을 지닌 ‘神’이 관여할 것이고, ‘慮’에서 ‘智’로의 전개는 현실 세계에 알맞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므로 金, 剛, 決의 象을 지닌 ‘魄’이 관여할 것이다.

3. 하나의 感情에 몰입하여 그 感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感情으로 인해 발생하는 氣機변화는 그와 반대 운동을 하는 五神을 傷하게 하여 정신 증상 및 신체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그 五神이 克을 당하는 계절에 죽을 수 있다.

4. ‘魂神意魄志’ 五神의 활동은 ‘血脈營氣精’에 깃들어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五藏氣의 虛實 증상은 陽藏인 肝心에서는 신체 증상보다는 氣의 변화인 感情으로 나타나고, 陰藏인 脾肺腎에서는 形의 변화인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陰陽의 속성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5. 『靈樞·本神』篇은 전체적으로 刺鍼時 환자의 氣와 神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편으로, 一章의 서두에서 刺鍼할 때는 ‘神’을 근본에 두어야 한다고 했고, 二章의 말미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精神魂魄의 存亡과 得失을 잘 알아야 하며, 五神이 傷했다면 鍼治療를 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고, 三章에서는 ‘神’보다 한 단계 낮은 層次인 ‘氣’의 虛實을 살펴서 조절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神의 상태를 살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쓰임은 氣로 나타나지만, 氣를 부리는 것은 神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p.39, 97, 1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97, 146.
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yeo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p.68, 69, 1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69, 168.
3. Zhang Jiebin. Leijing. Seoul. Daeseongmunhwasa. 1982. p.59.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9.
4. SH Kim. A study on the concept of Jeong (精)·Sin(神)·Hon(魂)·Baek(魄)·Sim(心)·Ui(意)·Ji(志)·Sa(思)·Ryeo(慮)·Ji(智).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f Woosuk University. 1993. 15. pp.349-372.
김성훈. 本神篇의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에 對한 概念考察. 又石大學校論文集. 1993. 15. pp.349-372.
5. IC Jeong, SR Lee. A study on the emotional change and mental damage in BenShen chapter in LingShu.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9. 10(2). pp.135-156.
정인철·이상룡. 『靈樞·本神篇』에 나타난 情志變化와 神志傷에 對한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10(2). pp.135-156.
6. SU Choe, JS Gang. Study on the Five Spirit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1. 15(3). pp.367-372.
최성욱, 강정수. 五神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 15(3). pp.367-372.
7. SR Back. Study on duties and abilities of a human's mentality[five kinds of mental activities]-Oriental Medicine's outlook on

- mentality-.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3. 16(2). pp.304-316.
백상룡.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한 考察-한의학의 精神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2). pp.304-316.
8. DS Seo. A study on the Bon Shin Pyun of the Young Chu. Master's degree paper of Wonkwang University. 1999. pp.1-42.
서대신. 『靈樞·本神篇』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1-42.
9. MD Cai. Analysis of cognition of process of thinking in BenShen chapter in LingShu. Yunna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Materia Medica. 1997. 18(6). pp.28-29.
蔡明德. 分析『靈樞·本神』對思維過程的認識. 云南中醫中藥雜誌. 1997. 18(6). pp.28-29.
10. LC Zhao. Decoding psychology of thought and memory in BenShen chapter in LingShu.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3. 11(4). pp.3-4.
趙林燦. 『靈樞·本神』中“意”與“憶”的心理學解讀.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3. 11(4). pp.3-4.
11. MQ Wang.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ideas of cognition in BenShen chapter in LingShu. Journal of Southwest China Normal University(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ition). 1988. 1. pp.18-20.
王米渠. 『靈樞·本神篇』關於認知的心理思想.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8. 1. pp.18-20.
12. JH Kim, UW Hwang. A study on Shin in Huangdineijing. Journal of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1986. 7(1). pp.104-108.
김지혁, 황의완. 內經에 나타난 神의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6. 7(1). pp.104-108.
13. CH Jeong. A study on Shin-focus on 『Huangdineijing』-. Doctor's degree paper of Kyunghee University. 1997. pp1-100.
정창현. 神에 대한 연구-『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1-100.
14. KJ Kim. The review of the Syn in the Ne-Kyng. Journal of Eastern Physiology. 1994. 9(1). pp.1-12.
김광중. 內經에 나타난 神의 의미-神의 本源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의생리학회지. 1994. 9(1). pp.1-12.

